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아세안(ASEAN) 주요 4개국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

발행인 : 한 상 완  
편집주간 : 김 동 열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아세안(ASEAN) 주요 4개국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성장 잠재력 .....	3
(1) 베트남(Vietnam) .....	3
(2) 인도네시아(Indonesia) .....	6
(3) 필리핀(Philippines) .....	10
(4) 태국(Thailand) .....	12
3. 시사점 .....	15
【HRI 경제 통계】 .....	16

## &lt; 요약 &gt;

## ■ 개요

아세안(ASEAN)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10개국의 협력기구를 의미한다. 아세안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14년 3.2%로 증가하여,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비록 아세안의 성장률은 중국에 비해서 낮지만,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2013년 1,254억 달러)은 중국(1,239억 달러)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은 한국에게도 중요하다. 한국의 對 아세안 수출 비중은 2004년 9.5%에서 2014년 14.8%로 증가하여,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이다. 경제 교류는 한-아세안 FTA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세안을 대표하는 4개국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 ■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성장 잠재력

## (1) 베트남(Vietnam)

**(낮은 임금 수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쟁력이다. 노동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7,1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은 경쟁국인 중국이나 인접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낮은 수준이다.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근로자는 근면하고 성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산층의 확대)** 베트남의 일인당 소득은 주변의 신흥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일인당 소득의 증가는 중산층 증가로 이어져,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35,000 달러의 중산층 규모는 2009년 1,680만 명에서 2020년 5,580만 명으로 3.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투자 기회)** 현재 베트남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도시화가 진전(도시화율 2011년 31.0% → 2050년 55.9%)되면서 전기·통신·물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인도네시아(Indonesia)

**(풍부한 노동력)** 인도네시아(2억 5,100만 명)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생산기지로써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84억 달러(2013년 기준)로 인접 신흥국들을 상회한다.

**(대규모 소비시장)** 대규모 인구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빈곤층이 감소하고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중산층 인구는 2,400만 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1억 4,500만 명으로 증가하고, 고소득층 인구도 2,9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다양한 천연자원)** 인도네시아는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 농업자원, 관광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주석, 니켈, 금 등 광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게 매

장되어 있으며 팜오일, 코코아 등 농업자원도 풍부하다. 이 밖에도 천혜의 자연환경에 기반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수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도시화의 진전)**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2011년 50.7%에서 2050년 72.1%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도시생활과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 (3) 필리핀(Philippines)

**(BPO산업 경쟁력 우수)** 전반적인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지만 BPO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들의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 친절하고 온순한 국민성, 저렴하고 안정된 임금수준을 바탕으로 인도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BPO산업 국가로 성장하였다.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 필리핀은 세계 12위의 인구 대국이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000~2014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하던 일인당 소득은 2015~2019년에는 이전보다 빠른 연평균 10.1%의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 (4) 태국(Thailand)

**(교육 경쟁력 우수)**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인구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변국 대비 고등교육 경쟁력이 양호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자본집약적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주변 신흥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여력 확충 기대)** 태국의 일인당 소득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산층 인구 규모도 2009년 3,955만 명에서 2020년 4,950만 명으로, 동일 기간 고소득층 규모는 201만 명에서 72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한 소득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중장기 소비 여력 확대가 기대된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다. 도로·항만·전기 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평균 이상이고, 최근 들어 교통과 수자원 부문에서 국가 주도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전기보급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도 좋은 편이다.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189개국 중에서 18위를 기록 중이다.

## ■ 시사점

첫째, 아세안의 대표적인 신흥국들을 한-아세안 FTA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한-아세안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이 생산·소비·인프라·자원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들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활용, 한류 열풍을 이용한 아세안 중산층 소비시장 공략, 인프라 건설 등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한-아세안의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향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불식시키고,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교류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1. 개 요

○ (아세안의 부상)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아세안이 부상

- 아세안(ASEAN)<sup>1)</sup>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0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 기구를 의미
  - 아세안은 1967년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유럽연합과 같은 단일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 추진 중
  - 아세안에 속한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흥국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정치체제·민족·종교 등은 상이
- 아세안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적 위상이 점차 강화
  - 중국(2013년 기준 7.7%)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세안(4.7%)은 세계 평균(2.2%)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sup>2)</sup>
  - 이를 바탕으로 세계 GDP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14년 3.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또한 2013년 기준 아세안이 세계 교역액(수출액+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 수준

< 아세안 가입국 위치 >



자료 : KOTRA(Global Window).

< 아세안 개요 >

가입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종교	불교, 가톨릭, 이슬람교, 개신교 등 다양
정치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절대세습왕정, 입헌군주제, 사회주의공화제 등 다양
면적	448만 Km <sup>2</sup> (세계 면적의 3.3%)
인구	6억 3,700만 명(세계 인구의 8.3%)
GDP	2조 4,690억 달러(세계 GDP의 3.2%)
교역	2조 5,200억 달러(세계 교역액의 6.7%) (수출 1조 2,700억 달러, 수입 1조 2,50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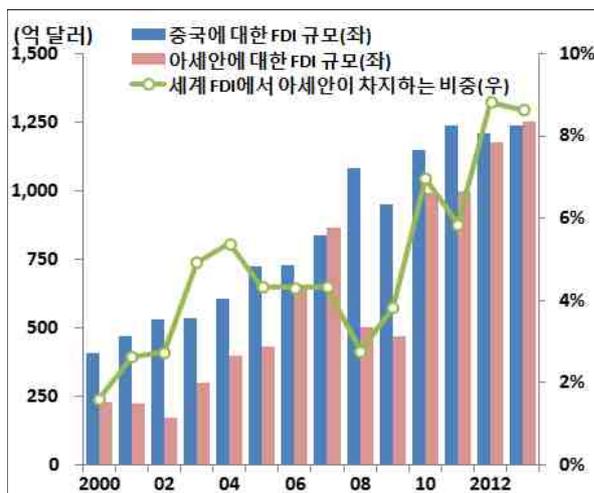
자료 : CIA, IMF, WTO.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줄여서 아세안(ASEAN)이라고 함.  
 2) 세계은행의 2005년 불변가격(달러)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아세안의 경제성장률은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의 가중평균 성장률을 의미.

○ (아세안의 중요성)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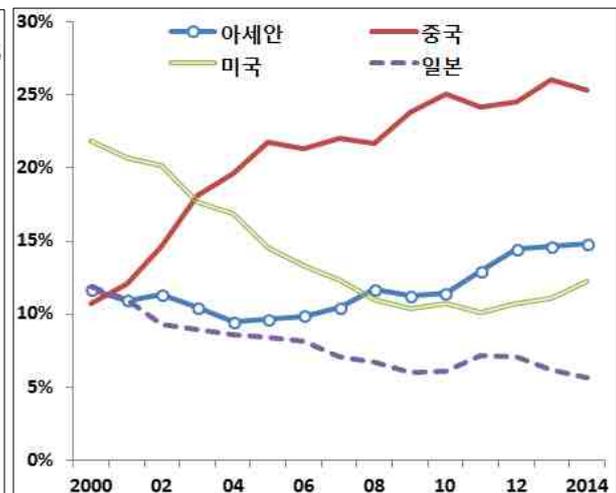
- 아세안은 생산기지, 소비시장 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에 기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중국을 상회하기 시작
  - 아세안 10개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4.1%씩 증가하여 2013년 기준 1,254억 달러이며, 전 세계 FDI의 8.6% 비중을 차지
  - 2008년 580억 달러에 이르렀던 중국과의 FDI 유입액 격차는 점차 줄어들어, 2013년에는 아세안으로의 유입액(1,254억 달러)이 중국으로의 유입액(1,239억 달러)을 상회
- 아세안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 교류 대상으로, 한국의 2대 수출시장에 해당
  - 한국의 對 아세안 수출 비중은 2004년 9.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4.8%에 도달
  - 특히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의 對 아세안 수출은 연평균 11.8%씩 급증하여 2014년 848억 달러에 이룸
  - 2014년 기준 아세안 경제권은 미국(12.3%)과 일본(5.6%)을 따돌리고 중국(25.4%)에 이어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입지를 강화
- 이에 아세안에 속한 대표적인 신흥 4개국의 성장 잠재력을 각국의 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아세안으로의 FDI 추이 >



자료 : UNCTAD.

< 한국의 對 아세안 수출비중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 2.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성장 잠재력

### (1) 베트남(Vietnam)<sup>3)</sup>

#### ○ (생산)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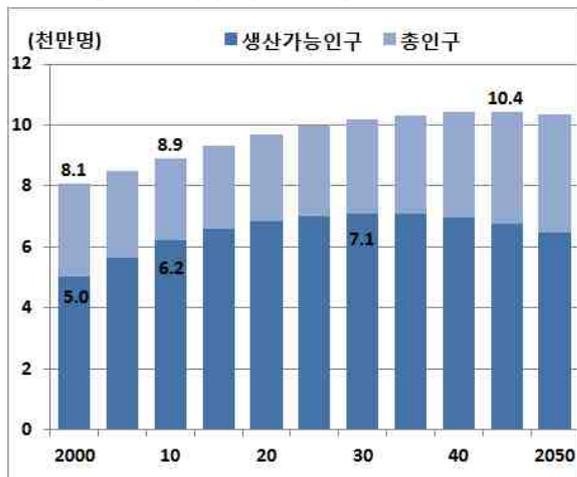
##### - 대규모 인구에 기반한 풍부한 노동력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쟁력

- 베트남(약 9,100만 명)은 세계 14위의 인구 대국으로 2025년 경에는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7,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0.8%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할 전망

##### -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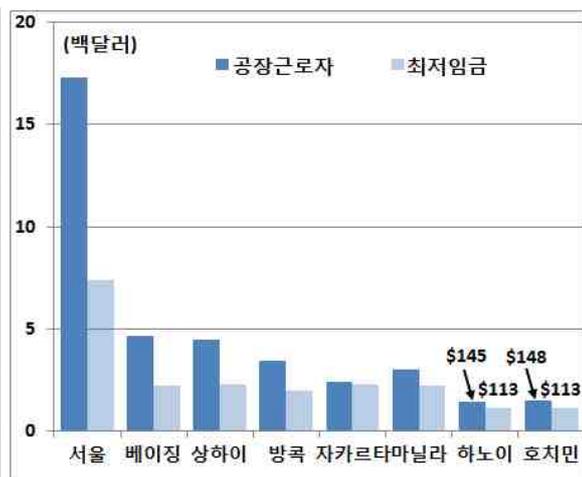
- 베트남 하노이(145달러)와 호치민(148달러)의 공장 근로자 평균 임금은 아시아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
- 베트남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낮지만 일반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육 수준도 높은 편에 속함
- 한편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공급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 >



자료: United Nations(2012년).  
 주: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를 의미.

< 아시아 주요 도시의 임금 수준 >



자료: JETRO(2013년).  
 주: 월평균 임금 기준.

3) 현대경제연구원,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시사점”, 체어퍼슨노트 신성장연구(14-10), 2014.09.12를 재구성.

○ (소비)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중산층의 급격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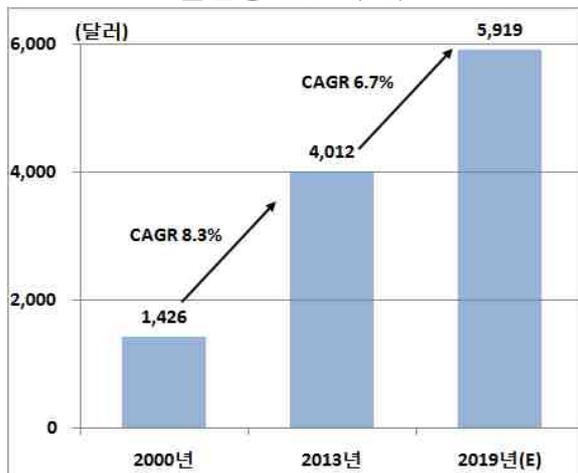
- 베트남 국민의 일인당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베트남의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은 약 4,000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8.3%씩 증가<sup>4)</sup>
- 2014년 이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2019년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약 5,900달러에 이를 전망<sup>5)</sup>
- 그러나 주변의 신흥국가인 태국(9,875달러), 인도네시아(5,214달러), 필리핀(4,681달러), 중국(9,844달러)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2013년 기준)

- 일인당 소득 향상은 저소득층 감소와 중산층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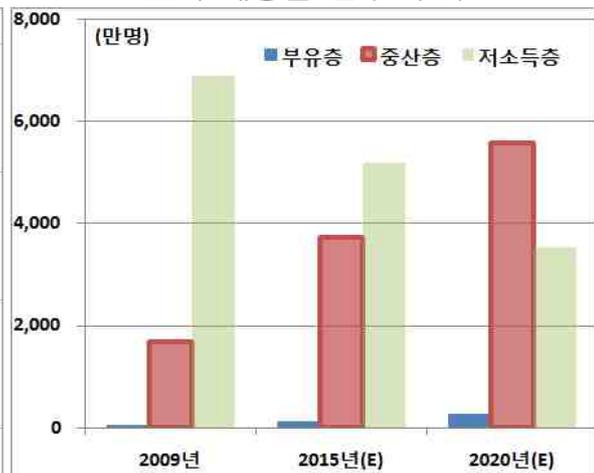
-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2009년 6,890만 명에서 2020년 3,54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
- 한편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35,000달러의 중산층 규모는 2009년 1,680만 명에서 2020년 5,580만 명으로 3.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가처분소득 35,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규모 또한 2009년 60만 명에서 2020년 270만 명으로 4.5배 증가

< 일인당 GDP 추이 >



자료 : IMF.  
주 : 구매력 소득 기준.

< 소득 계층별 인구 추이 >



자료 : JETRO.  
주 : 중산층은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35,000달러.

4) 일인당 GDP는 명목 기준으로 2000년 402달러에서 2013년 1,902달러로 연평균 12.7%씩 성장.

5) 일인당 GDP는 명목 기준으로 2019년 2,780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2014~2019년 연평균 성장률은 6.5%가 예상됨.

○ (인프라)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 기회

- 전기·도로·항만 등 베트남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열악

- 베트남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3.2)은 세계 평균(4.3)이나 태국(4.9), 인도네시아(3.7) 등 동남아 주변국보다 열악한 상황
- 특히 도로와 전기 인프라 수준이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인프라의 낙후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전반의 비효율성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음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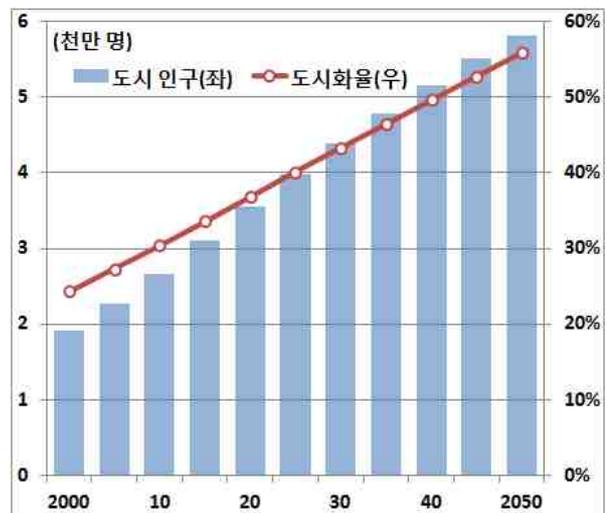
- 베트남의 도시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2,760만 명이고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31.0%에 불과
- 그러나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2050년 도시 인구는 5,820만 명, 도시화율은 55.9%에 이를 전망
- 도시화의 진전은 전기·통신·물류 등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인프라 수준 >

	도로	철도	항만	전기	종합
말레이시아	5.4	4.9	5.5	5.9	5.4
태국	5.0	2.6	4.6	5.5	4.9
인도네시아	3.4	3.2	3.6	3.9	3.7
필리핀	3.4	1.9	3.3	3.7	3.6
베트남	2.7	2.6	3.4	3.1	3.2
전세계 평균	4.0	3.1	4.3	4.5	4.3

자료 : WEF(2012-2013).  
주 : 7점 만점 기준.

< 도시 인구 및 도시화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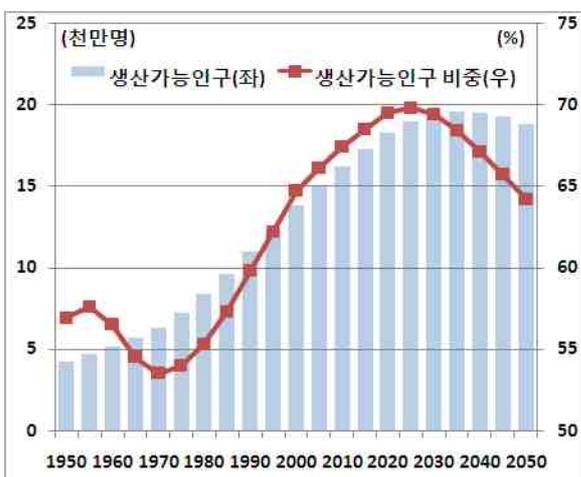
자료 : United Nations(2011년).  
주 : 도시화율 = 도시 인구 / 전체 인구.

(2) 인도네시아(Indonesia)<sup>6)</sup>

○ (생산) 세계 4위의 대규모 인구에 바탕을 둔 풍부한 노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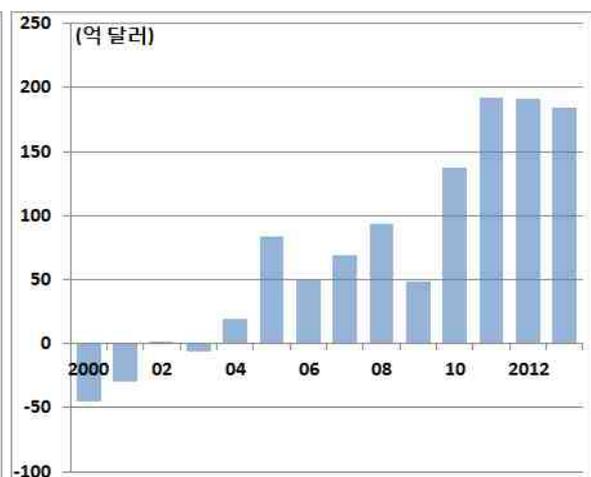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생산가능인구는 세계 4위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인도네시아의 인구 규모(2012년 기준 2억 5,116만 명)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 한편 노동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10년 기준으로 1억 6,1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7.4% 비중
  -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약 1억 9,555만 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25년 69.8%를 기록한 이후 하락할 전망
-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해외자본은 지속적으로 유입
  - 국내 투자의 바탕이 되는 대규모 자본은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음
  - 특히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급증하여 2013년 기준 184억 달러이며, 이는 인접 신흥국인 베트남(89억 달러), 필리핀(39억 달러), 태국(129억 달러)보다 많은 수준

<인도네시아 생산가능인구 추이>



자료 : United Nations(2010년).  
 주 : 생산가능인구는 15세~64세 인구 의미.

<인도네시아로의 FDI 유입액 추이>



자료 : UNCTAD.

6) 현대경제연구원, “인도네시아의 5대 성장 동력”, 체어퍼슨노트(13-47), 2013.05.14를 재구성.

7)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050년(약 2억 9,346만 명)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자료: United Nations).

○ (소비) 빈곤층의 감소와 중산층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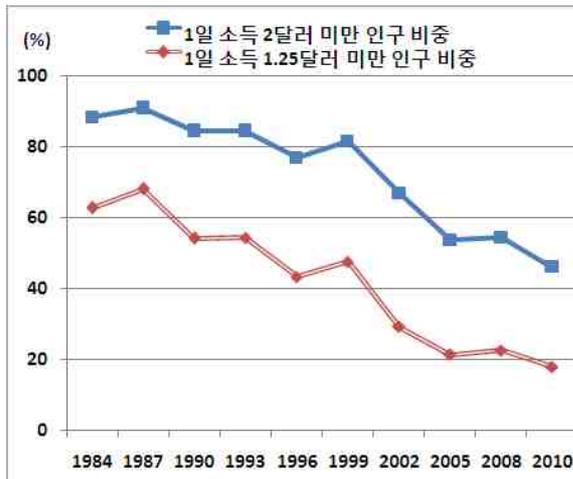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1일 소득 2달러(2005년 구매력 기준) 이하의 인구 비중은 88%(1984년)에서 46%(2010년)로 감소
- 1일 소득 1.25달러(2005년 구매력 기준) 이하의 인구 비중 또한 63%(1984년)에서 18%(2010년)로 감소
-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인구 비중도 18%(2002년)에서 12%(2012년)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sup>8)</sup>

- 반면 중산층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의 일인당 GDP는 2014년 기준 3,400달러이며, 연평균 6.0%(2015년~2019년)씩 증가하여 2019년에 4,56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sup>9)</sup>
- 2011년 기준으로 연소득 3,000~15,000달러의 중산층은 약 2,400만 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약 1억 4,500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
- 연평균 소득 15,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인구 또한 2050년에 약 2,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sup>10)</sup>

<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비중 추이 >



자료 : World Bank.  
 주 : 1) 2005년 구매력 달러 기준.  
 2)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득 계층별 인구 규모 >

(단위: 백만명)

	2011년	2050년
저소득층	217	116
중산층	24	145
고소득층	-	29

자료 : UN, World Bank, HSBC.  
 주 : 1) 3,000달러<연소득<15,000달러를 중산층으로 정의.  
 2) 2000년 불변가격(달러) 기준.

8) World Bank 자료 참조.  
 9)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4)를 참조.  
 10) HSBC, "Consumer in 2050", 2012.10를 참조.

○ (자원)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업자원, 관광자원을 보유

- 인도네시아는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
  - 주석(매장량 기준 세계 2위), 니켈(세계 6위), 금(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6위), 구리(세계8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의 동력
  -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소비 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음<sup>11)</sup>
- 팜오일, 코코아 등 농업자원 생산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위 차지
  -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생산은 세계 1위이며, 유가상승으로 인해 팜오일에서 추출 되는 바이오 디젤이 대체가능원료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sup>12)</sup>
  - 팜오일 뿐만 아니라 고무(2위), 코코아(2위), 커피(4위) 등의 생산에 있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지하자원과 농업자원 외에도 천혜의 자연환경에 기반한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 지하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

	단위	매장량	생산량	
			2010년	2011년
구리	천톤	28,000(8위)	872	625
니켈	천톤	3,900(6위)	232	290
주석	천톤	800(2위)	56	42
금	톤	3,000(6위)	120	96
보크 사이트	백만톤	1,000(6위)	-	37
석유	백만톤	600(28위)	48	46
천연 가스	십억 입방피트	104,700 (14위)	7.9	7.3
석탄	백만톤	5,529(14위)	275	325

자료 : USGS, BP.

주 : 1) 천연가스 생산량은 일일당 생산량 기준.  
2) 괄호 안의 값은 매장량 순위.

< 농업자원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재배면적 (단위: 천ha)	생산량(단위: 천톤)	
		2010년	2011년
고무 (2위)	524	541	602
팜오일 (1위)	5,306	14,038	14,632
코코아 (2위)	92	65	45
커피 (4위)	48	29	24

자료 : Statistics Indonesia, KOTRA.

주 : 1) 괄호 안의 값은 생산량 순위.  
2) 재배면적은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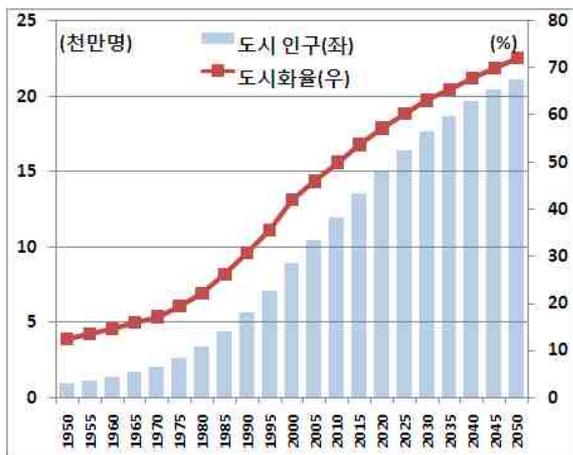
11)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석유수출기구(OPEC)의 회원국이었으나 2009년도에 탈퇴함.

12) KOTRA(Global Window) 자료 참조.

○ (인프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인프라 투자 기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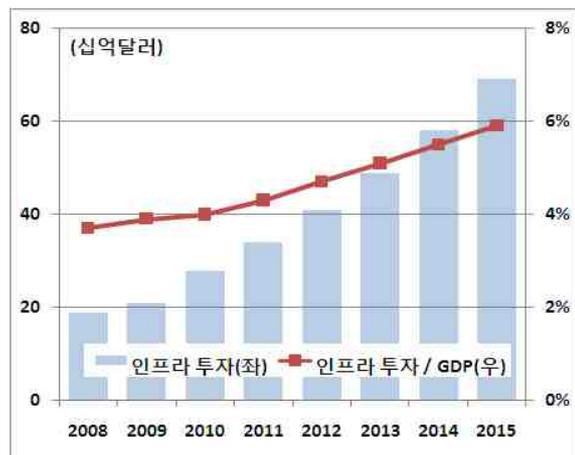
-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2011년 기준으로 도시인구는 1억 2,289만 명이고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50.7%에 불과
  - 도시인구와 도시화율은 2050년(2억 1,152만 명, 72.1%)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기·통신·물류 등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기준으로 약 410억 달러이고 GDP의 4.7% 수준(2008년 이후 연평균 약 21.1%의 증가율)
  - 2012년 기준으로 전체 투자액의 34%는 전기, 23%는 통신, 40%는 물류, 4%는 상하수도 시설에 배분<sup>13)</sup>
  - 2013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의 인프라 투자액은 총 690억 달러(GDP의 5.9%)이고 2013년~2015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은 19.1%로 전망

< 인도네시아 도시화 추이 >



자료 : United Nations(2011년 기준).  
 주 : 도시화율 = 도시 인구 / 전체 인구.

< 인프라 투자 규모 >



자료 : Morgan Stanley(2011년).  
 주 : 인프라는 전기, 통신,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상하수도 포함.

13) Morgan Stanley, "Indonesia Infrastructure: A US\$250bn Opportunity", May 2011.

(3) 필리핀(Philippines)<sup>14)</sup>

- (생산) 전반적인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지만, BPO 산업과 자원개발 산업은 유망
- 필리핀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sup>15)</sup>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BPO 산업의 매출액은 2004년 13.2억 달러에서 2011년 120.7억 달러로 연평균 37.1%씩 성장하고 있으며, 매출액 중에서 수출 비중이 90% 이상
  - 국민들의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 친절하고 온순한 국민성, 저렴하고 안정된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인도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BPO 산업 국가로 성장<sup>16)</sup>
  - 정부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BPO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각종 투자 유인책을 제시
- 필리핀은 세계 10대 광물 생산 잠재국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대 광물자원 부국
  - 필리핀 정부는 광물자원 매장 가치를 8,400억~10,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속광물 매장량을 79억 톤, 비금속광물 매장량을 510억 톤으로 추산
  - 구리, 금, 은, 니켈 등 15가지 이상의 금속광물과 석회석, 대리석 등 20가지 이상의 비금속광물을 보유<sup>17)</sup>

< BPO 산업 매출액 및 수출 비중 >



자료 :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

(단위: 백만톤)

	매장량
금	3,056
구리	2,968
니켈	953
크롬	18
철광석	410
알루미늄	292

자료 : KOTRA.

14) 현대경제연구원, “필리핀 경제 및 산업 동향”, 체어퍼슨노트(13-55), 2013.07.12를 재구성.

15) BPO는 핵심 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의 운영 및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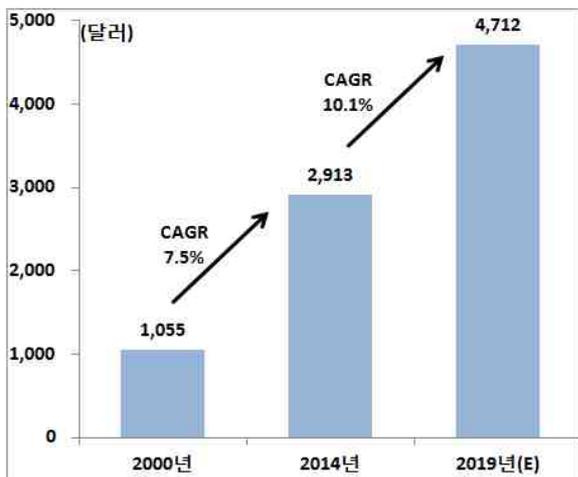
16) KOTRA(Global Window)자료 참조.

17) KOTRA,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투자 가이드”, 2010.08를 참조.

○ (소비)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

-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비의 바탕이 되는 소득 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필리핀은 세계 12위의 인구 대국이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 높음
  - 2014년 기준 필리핀의 일인당 GDP는 2,913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함
  - 2015~2019년에도 연평균 10.1%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2019년 기준 약 4,712달러의 일인당 소득에 이를 전망
  
- 소득 계층별로 저소득층 인구는 감소하고, 중산층 및 고소득층 인구가 증가
  - 연소득 3,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인구는 2011년 8,600만 명에서 2050년 3,1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 반면 연평균 가구소득 3,000~15,000달러의 중산층 인구는 2010년 1,000만 명에서 2050년 9,200만 명으로 9배 이상 증가
  - 또한 연소득 15,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인구도 2050년에는 3,000만 명에 이르러 소비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일인당 GDP 추이 >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4.10).  
주 : 명목소득 기준.

< 소득 계층별 인구 규모 >

(단위: 백만명)

	2011년	2050년
저소득층	86	31
중산층	10	92
고소득층	-	30

자료 : UN, World Bank, HSBC.  
주 : 1) 3,000달러<연소득<15,000달러를 중산층으로 정의.  
2) 2000년 불변가격(달러) 기준.

(4) 태국(Thailand)<sup>18)</sup>

○ (생산)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주변국 대비 고등교육 경쟁력이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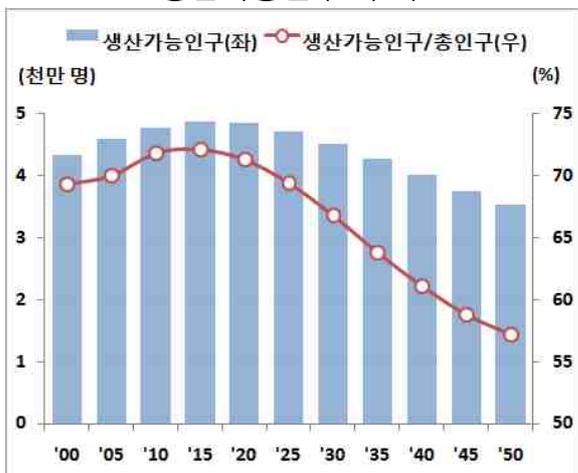
-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는 2015년 이후 감소할 전망

- 2014년 현재 6,770만 명(세계 21위)의 총인구는 2025년 6,79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6,170만 명을 기록할 전망
-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약 4,318만 명에서 2015년 약 4,860만 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50년에는 3,529만 명 기록 전망
-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의 72.1%를 기록한 이후 하락할 전망

- 주변국 대비 고등교육 경쟁력이 양호하여 제조업 및 첨단기술 기반의 자본집약적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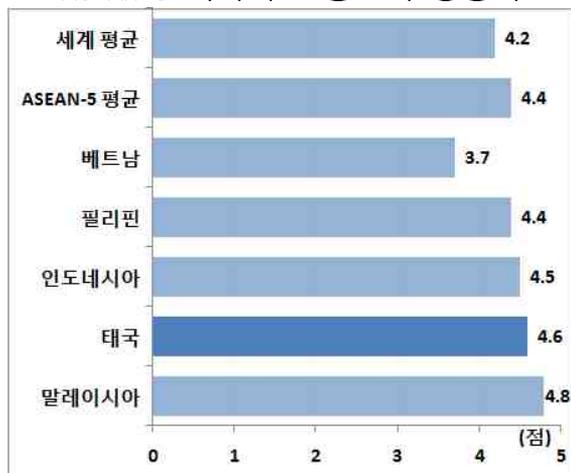
- 태국은 2010년대 초반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이 문제시되어 노동자 기술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최근 고등교육 경쟁력이 개선됨<sup>19)</sup>
- 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4.6)은 ASEAN-5 국가 중에서 말레이시아(4.8) 다음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향후 첨단기술 기반의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

< 생산가능인구 추이 >



자료 : United Nations(2012년).  
주 :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를 의미.

< ASEAN-5 국가의 고등교육 경쟁력 >



자료 : WEF(2014-2015).  
주 : 7점 만점 기준.

18) 현대경제연구원, “새롭게 떠오르는 아세안 신흥시장: ②태국”, 체어퍼슨노트 신성장연구(14-14), 2014.10.17를 재구성.

19) 한국수출입은행, “태국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2013.05.31를 참조.

○ (소비) 소득 수준 향상으로 중산층이 증가하여 소비 여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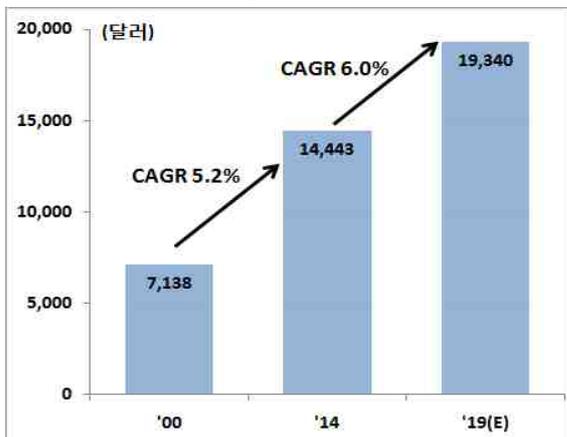
- 일인당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 태국의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2%씩 증가하여 2014년 현재 14,442달러를 기록
- 이는 동년 기준으로 ASEAN-5 국가 중에서 말레이시아(24,520달러)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10,156달러), 필리핀(6,986달러), 베트남(5,621달러)보다 높은 수준
- 태국의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은 2015년 이후에는 이전(2000~2014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여 2019년에는 약 19,340달러에 이를 전망

- 소득 수준 증가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득세 인하 정책 효과 등으로 중장기 소비 여력 확충이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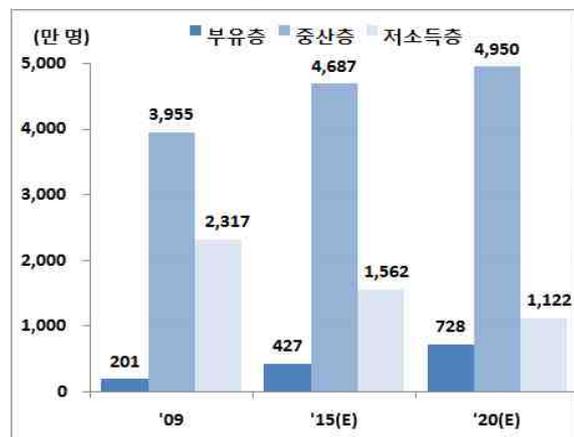
-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2009년 2,317만 명에서 2020년에는 1,122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
- 이에 비해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35,000달러의 중산층은 동일기간 3,955만 명에서 4,9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중산층의 경우 2014년부터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소득세 인하 정책의 수혜를 받아 중장기 소비 여력 확충이 기대<sup>20)</sup>

< 일인당 GDP 추이 >



자료 : IMF.  
주 : 구매력 평가(PPP) 기준

< 소득 계층별 인구 추이 >



자료 : JETRO, Eruomonitor.  
주 : 중산층은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35,000달러.

20) KOTRA, “2014년에 바뀌는 태국 비즈니스 관련 정보”, 2014.03.14를 참조.

○ (인프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수준은 비교적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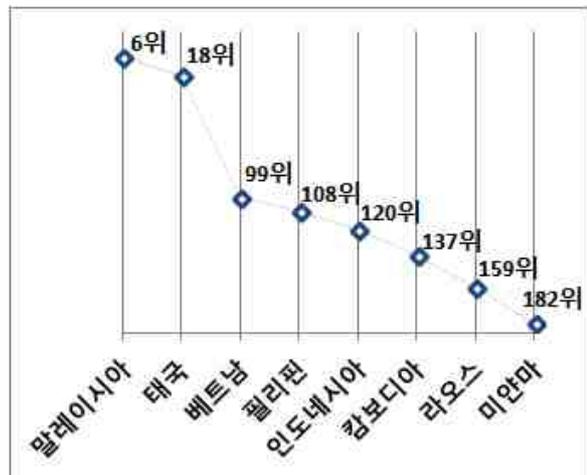
- 도로·항만·전기 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주변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교통과 수자원 부문에서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 전망
  - 태국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4.1)은 주변국인 ASEAN-5 평균(4.2)과 유사한 수준이며 말레이시아(5.6)와 인도네시아(4.2) 다음의 3위에 해당
  - 태국은 도로와 항만, 전기보급 등에서 ASEAN-5 국가들 평균보다 높은 인프라 수준을 보유
  - 최근 태국은 2015년 ‘ASEAN 경제공동체’ 출범에 대비하고 중진국 합정 극복을 위해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과 수자원관리사업 등에 국가 주도의 투자를 확대<sup>21)</sup>
- 건축허가 취득, 전기보급, 투자자 보호 등의 부문에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기업에 제공
  - 기업의 사업 활동 용이성에 대한 척도를 측정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태국의 親비즈니스 환경(18위)은 말레이시아(6위) 다음으로 좋음
  - 특히 건축허가 취득(14위), 전기보급(12위), 투자자 보호(12위) 등의 부문에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 대비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

< ASEAN-5 주요국의 인프라 수준 >

	도로	철도	항만	전기	종합
말레이시아	5.6	5.0	5.6	5.7	5.6
인도네시아	3.9	3.7	4.0	4.3	4.2
태국	4.5	2.4	4.5	5.1	4.1
필리핀	3.6	2.3	3.5	4.2	3.7
베트남	3.2	3.0	3.7	4.2	3.3
ASEAN-5 평균	4.2	3.3	4.3	4.7	4.2

자료 : WEF(2014-2015).  
주 : 7점 만점 기준

<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親비즈니스 환경 순위 >



자료 : World Bank.  
주 : 전 세계 189개국 중 순위.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태국의 대규모 국책사업 현황과 시사점”, 2013.03.25를 참조.

### 3. 시사점

- 첫째, 아세안의 대표적인 신흥국들을 한-아세안 FTA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해야 한다.
  - 중국의 성장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아세안은 중국을 대신하여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대표적인 신흥국가를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와 부정부패, 행정 비효율성 등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을 고려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
  
- 둘째, 아세안의 생산, 소비, 자원개발, 인프라시장으로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출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 한편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베트남의 인프라 건설 등 새로운 사업 기회에 도전
  - 동남아의 한류 열풍을 활용하여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 및 제품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현지기업과의 합작이나 정보력이 우수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 셋째, 한-아세안의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교류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가 필요
  -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자의 인권 향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불식시키려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요구
  - 아세안 지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아세안 각국의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제도,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 **HRI**

산업전략본부 안중기 선임연구원 (2072-6242,joonggiahn@hri.co.kr)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2.9	3.7	3.0	3.3	3.5	3.6	3.6
	민간소비 (%)	1.9	1.9	2.1	1.5	1.8	3.0	2.6	2.8
	건설투자 (%)	-3.9	5.5	1.8	0.4	1.0	1.8	4.3	3.0
	설비투자 (%)	0.1	-0.8	7.5	4.2	5.8	4.2	6.0	5.1
	지재투자 (%)	8.6	4.4	6.4	2.9	4.6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812	394	498	892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199	273	472	192	234	426
	수출 (억 달러)	5,479	5,596	2,832	2,895	5,727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4)	(2.2)	(2.3)	(4.1)	(4.7)	(4.4)
	수입 (억 달러)	5,196	5,156	2,633	2,622	5,255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7)	(1.2)	(1.9)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2	1.3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7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